

대호특수강, 2분기 실적 발표...매출액 814억 원, 영업이익 14억 원 달성

- ▶ 운송 비용 및 수출 단가 비용 증가와 일회성 비용 발생
- ▶ 강근욱 대표 "운영 정상화를 통해 수익 개선에 힘쓸 것"

[2024-08-14] 글로벌 철강 선재 가공 기업 대호특수강(대표 강근욱, 021040) 2024년도 2분기 경영실적을 14일 공시했다.

대호특수강의 2024년 2분기 매출액은 814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14억 원, 순손실은 2천 만원으로 집계되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2분기 실적에 대해 "운송 비용 및 수출 단가 상승과 양산공장 매각에 따른 일회성 수수료 발생에도 불구하고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영업이익 흑자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멕시코 선재 가공 센터의 지분법 손실로 인해 순이익 부문에서 적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대호특수강은 자동차, 건설, 기계, 조선 등 다양한 산업에 필요한 선재를 공급하는 글로벌 철강 선재 가공 기업이다. 회사는 생산 효율화를 위해 지난 2023년 기존 3공장 체제에서 양산 공장을 폐쇄하고 충주와 포항 공장 중심의 2공장 체제로 재편해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호특수강 강근욱 대표는 "2공장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양산공장 매각 수수료와 금융 자문료 등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다"며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경영 효율화를 통해 수익 개선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